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디오게네스의 등불과 프로메테우스의 불

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각자의 역할과 분배를 하고 능력이 나눠지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제우스가 불을 가장 신성하고 중히 여겨 불을 독점하면서, 특히 사람이 불을 다루는 것을 금했다. 불은 신성한 것이고, 불완전한 사람에게는 애초부터 가당치 않은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 일을 프로메테우스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불을 훔쳐서 사람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그냥 둘 리 없다. 불을 훔쳐서 나눠준 것에 대한 벌로 프로메테우스를 절벽에 묶어두고 독수리에게 날마다 새로 돌아오는 간을 쪼아먹게 했다. 사실 프로메테우스는 신 중의 신, 제우스의 응징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하기에 행한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왜 신이면서 사람의 편에서 가까이 있었을까? 예술가와 작가들의 시선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제우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람의 편에 선 이유는 제우스의 부당함과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 모습에서 예술가들은 잠깐된 권력에 맞서 자기 존엄성을 지키려는 사람다움을 보았다. 특히 독일의 작가 괴테(1749-1832년)가 그러했다. 괴테는 프로메테우스를 사람의 전형으로 보는데 '프로메테우스 시'에서 절대권력을 탐하는 제우스를 거세게 질타한다. 무능하고 못나빠져서 차려주는 밥상이나 차지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그 시의 구절이다. "신들이여 태양 아래서 너희들보다 가련한 존재는 없으리라. 너희는 쩌쩌하게도 희생물로 바친 제물이나 기도의 한숨으로 너희 위엄

을 키우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괴로움을 가볍게 해 주었던 일이 있었던가. 그녀는 한 번이라도 고뇌로 몸부림치는 인간의 눈물을 씻어 준 일이 있었던가."

괴로워하고 울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나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사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가 또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다움의 본질이 저항으로 지배당하기를 거부하고, 행위로서 가치있는 삶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이는 프로메테우스의 불 훔치기를 통해서 형상화된다. 뭐든 마음대로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신들보다 고뇌하고 괴로워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사는 삶을 더 가치 있다고 말한다.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어둠을 밝히는 힘으로서의 지성, 지혜, 합리적 사고능력에 대한 비유다.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권력남용에 대한 저항은 사람의 자궁적 표현이자 자유의지의 실현이다. 신화를 사람의 이야기, 사람을 위한 이야기로 읽는 이유다.

자존심도 염치도 없이 앞드려 감추어줄 줄 아는 이 시절의 공평이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알렉산더 왕이 직접 찾아와서 소원을 말하면 들어 주겠다고 하자, 햇볕이나 가리지 말라며 일갈한 디오게네스의 자존심을 생각한다. 디오게네스의 자존심과 프로메테우스의 불 훔치기의 용기를 되새긴다. 그 이유는 '어디 사람 없느냐'는 탄식이 여전히 사람 찾는 희망의 소리, 사람다움을 지키려는 의지 표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맨발의 자유

음 인류도 맨발이었을 것이니 그 원시의 추억이 되살아난 것인지도 모르겠다. 맨발로 맨발을 밟는 순간의 서늘한 쾌감은, 벗어버림으로써 느낄 수 있는 자유의 감각이다. 내 발은 어느새 대지와 교합을 이룬 듯 리듬을 타고 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또 하나의 패션일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신데렐라의 드레스를 완성하는 것은 드레스를 꾸민 화려한 장식이나 왕관이 아닌 '우리 구두'였듯이, 신발은 패션이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회적 기호로 작용한다. 어떤 모양, 어떤 재질, 어떤 색상, 심지어는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신었느냐에 따라 각각의 위상이 달라 보이기도 한다. 신발은 패션의 디테일과 센스를 돋보이게 해주는 문명의 산물임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진짜 발을 가리운 사회적 페르소나 혹은 포즈에 가까울 수도 있다.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세상을 더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반면에 우리를 옥죄는 억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맨발은 그러한 모든 것을 벗어 던진 상태다. 아무것도 더하지도 걸치지도 않은 맨발이 됨으로서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이다. 맨발과 맨발 사이의 그 직접성을 만끽하며 저 옛날 원시의 숲에서 뛰놀던 때처럼 대지의 영혼을 느껴보는 것이다.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접을 통해 아직 그 품 안에 있음을 끼껴이 확인하는 것이다.

비 오는 날, 혹은 갠 지 얼마 안 된 날의 맨발은 한결 자유롭다. 웅덩이를 활짝거리거나 발가락 사이로 피어오르는 흙바닥의 보드라운 감촉을 느낄 때면, 저 유년으로 돌아간 듯 해젯하기 바쁘다. 팔랑팔랑 감미롭고

서늘한 촉감을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물기 촉촉한 운동장을 맨발로 활짝거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맨발의 춤꾼이 된다.

가수 이은미의 공원을 본 적 있다. 도심 공원에 자리한 야외무대에서였다. '맨발의 디바'라는 별명답게 그녀의 발에는 아무것도 신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맨발은 가볍고 시원했으며 자유롭고 당당해 보였다. '킬힐'로 이루어내는 아찔한 각선미보다 납작하게 내려앉은 맨발의 평평함에 오히려 반전의 매력이 있었다.

붓다의 일생은 순재 맨발로 상징된다. 탄생부터 열반까지 모두 길 위에서 이루어진 맨발의 삶이었다. 어머니 마야부인이 해산을 위하여 진정으로 가는 도중 롬비니 동산의 길 위에서 태어나고, 수행을 위하여 맨발로 출가하였으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도 맨발로 가르침의 길을 떠났다. 45년의 긴 세월을 길 위에서 맨발로 중생들을 만나 가르치다 길 위에서 열반을 맞았다.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맨발의 수행자가 된 것은 기존의 신분과 권위, 특권과 지위를 버린 위대한 포기를 의미하며, 모든 세속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뜻한다.

전통적인 발레복이나 토슈즈 없이 맨발로 춤을 추었던 이사도라 당컨,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 함께했던 춤꾼 이예주, 전위 무용가 홍신자, 만신 김금화... 그들도 맨발이었다. 그들 역시 맨발의 투혼을 보여준 진정한 구도자가 아닐까.

여름날의 저편,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 맨몸이 될 수는 없으니 맨발로라도 대지의 숨결을 느끼며 자연의 존재로 돌아가고 싶다. 이 저편이나마 홀출 자유로워지고 싶다.

社說

오염수 정보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 작되면서 어민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오염수 첫 방류 이후 환경성 등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변 바닷물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불안감은 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어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3명을 일본에 보내 오염수 방류 점검에 나섰다. 우리 측 파견단은 현지에서 일본 정부와 IAEA 측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방류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2주에 한 번씩 현지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점검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IAEA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무

엇보다도 방류 주체인 일본 정부와 IAEA가 오염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제공된 정보를 최대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고 나아가 일본 현지에서 우리 손으로 방사성 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급감하는 수산물 소비를 막을 수 없어 수산업계가 붕괴될 우려가 크다.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검증해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국내에서도 수산물 안전 검사를 더욱 확대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

방사성 위험 물질인 삼중수소 검사법이 아직 없는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남도의 경우 두 대에 불과한 감마핵종분석기 등 검사 장비 지원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점자 요리책 눈길...편견 깨는 장애인 지원 필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요리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 동구가 광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제작한 '요리조리 쿠킹클래스'는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은 칼과 불을 다루는 요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김현진 명인이 참여한 책에는 깻잎 김치, 상추 곁절이, 진미채 볶음, 궁중 떡볶이 등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이용한 20가지 요리의 조리법이 담겼다.

이번 점자 요리책은 인스턴트 요리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집밥을 해 먹음으로써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점자 요리책이 없어 지금까지는 레시피를 구두로 전달하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점자 요리책을 통해 정확한 조리

법을 배울 수 있어 요리에 관심을 갖는 장애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요리책 제작에는 광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역할이 컸다. 지난 6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협회는 회원들의 열정적인 도전 정신을 발견했고, 이번 책자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세한 요리법을 점자로 번역했다.

올해 교육부 지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선정된 동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요리 교실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점자 요리책 발간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 편견을 깨트렸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습적으로 기존 것들을 답습하는 경우도 많다. 장애인의 능력을 재단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 과감한 기획과 아이디어로 장애인들의 진정한 자립을 도와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공주 석장리 유적은 1960년대 한반도에서 첫 발굴된 구석기 사적이다. 현재까지 발견·발굴된 구석기 유적은 200여 곳에 달하지만 5곳만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순천 월평 유적은 2004년 영·호남 지역에서 처음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석장리, 연천 전곡리, 파주 가월·주월리, 단양 수양계 유적에 이어 다섯 번째다.

월평 유적 면적은 월암리 월평마을을 중심으로 17만 6521㎡에 달한다. 구석기, 청동기, 철기 등 발굴 유물 4만 4천여 점, 석기시대 직전까지 역사를 간직한 타임캡슐도 통한

최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제11회 아시아 구석기학회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13개국 연구자 123명이 참가한 이 행사에서 주민들의 남다른 문화재 사랑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월평 유적 소재지인 외서면 주민들은 사적 지정 3년 전인 2001년 12월 월평유적보존회를 결성했다. 2014년에는 조선대와 함께 월평 유적을 조성하는 국제 학술대회까지 열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 외서초등학교의 '선사에서 미래로'는 대표적 문화재 특화

교육으로 자리매김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창작동화집 '유적을 지켜라, 월평탐사대' 세 권을

펴냈고, 창작 협주곡 'Old Stone Age'를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순천 구석기인을 기리는 헌정곡이다.

문화재에 숨결을 불어넣는 주체는 지역민이다. 마한사의 핵심 지역으로 통하는 나주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박물관이 들어선 동력도 지역민의 관심과 지지였다. 순천 지역민들의 월평 유적에 대한 깊은 애정이 유적 전시관이나 박물관 건립을 이끌어 내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순천의 보물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政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 고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광주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이렇게 만들어야

정부와 지자체의 산업육성 의지와 집중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선제적으로 미래차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센터, 시험 및 인증센터,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 품질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 부품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기술 지원과 고도화 그리고 규제 혁신을 통해 부품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광주는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필두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연구 기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미래차 부품 개발과 자동차 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 들어 광주 소부장 육성 필요성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다. 소부장이란 소재·부품·장비의 줄임말로 반도체 소재와 자동차·가전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초 물질과 부품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뿌리가 되고 있다.

광주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매출액의 43.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절대적이고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지역 제조업 필수 사항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특히 친환경,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복합화, 스마트화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기본 바탕은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에 좌우될 것이다. 우리가 소부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도 이번에 지정된 미래차 소부장 특구는

2028년까지 6000억 원을 투입해 기존 빛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산단 그리고 지난 3월 신규 지정된 미래차 국가산단을 연계해 약 220만 평 규모의 자동차 산업 벨트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미 국내외 70개 기업에서 약 1조 9000억 원의 투자 의향을 밝혔다. 지역 앵커 기업인 기아자동차와 광주글로벌모터스, LG이노텍, 한국알프스 등과 현대모비스에서도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집중적인 투자와 정부, 지자체 지원으로 특구가 활성화되면 광주는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인 인공지능, 제어부품, 통신시스템 등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다.

또한 기존 695개 부품 기업과 신규 투자 기업 성장으로 1만 6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1조 원의 부가가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투자와 인프라 구성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든든한 기반을 조성해주어야 하고, 광주시도 전담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투자 기업 발굴과 지역 유관기관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정부와 광주시를 보조해 미래차 소부장 특구 활성화와 우리지역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무췌록 우리지역에 모처럼 찾아온 호기를 발판 삼아 광주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노사를 비롯한 지역민 모두가 한 목소리, 한 몸처럼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